

송미령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재생에너지 사업 점검



▲농식품부 제공

재생에너지 수익 기반 기본소득 운영 성과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신안군 안좌도에 위치한 안좌스마트팜앤솔라시티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안좌면 기본소득 사용처를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해 주민에게 매월 20만 원(기본 15만 원, 추가 5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재원창출형 기본소득' 모델을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제도와

해 주민 참여와 발전 수익 공유를 결합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기본소득 사업 이후 신안군 인구는 3,436명 증가해 2026년 6월 기준 42,319명으로 8.8% 늘었으며, 지역화폐 가맹점도 149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기본소득 354억 원 중

88.1% 이상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확인됐다.

또한 도서지역 특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제품 판매장과 안경점이 새롭게 문을 열고, 하나마트 유희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 상권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동장터와 배달 서비스도 도입되며 주민 생활 편의가 확대되고 있다.

신안군은 여객선 운항 중심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 문제 개선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주민 참여형 소득 모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신안군은 발전 수익을 장학금, 시설 개선, 문화행사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환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우수 꿀벌 품종 개발 앞당기자’ 국내외 연구 협력 강화

국가간 꿀벌 육종 연구 현황과 개발 전략 공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중국, 베트남과 국내 꿀벌 육종 전문가, 양봉 관련 연구자, 양봉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꿀벌 육종 국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국가 간 꿀벌 육종 현황과 개발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꿀벌 육종 연구 고도화와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국 꿀벌 육종 현황 및 연구개발 방향과 꿀벌육에 방제 전략과 베트남 꿀벌 육종 현황

및 연구개발 방향 등 해외 꿀벌 육종 연구와 산업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꿀벌 육종 개발 전략, 유전체 기반 디지털 꿀벌 육종 전략, 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육종 현황 등 국내 꿀벌 육종 연구 및 산업 현황도 소개했다. 종합 토론회에서는 국가별 꿀벌 육종 기술을 비교하고, 국내 양

봉산업 여건에 맞는 육종 방향과 우수 품종 개발·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국가별 육종 기술을 비교 분석해 한국형 표준을 확립하기 위한 귀중한 자리”라며, “이를 통해 우리 육종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 인력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한국식품산업협회-기술보증기금-농협은행

푸드테크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1770억원 규모 특별 보증 프로그램 마련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진선, 이하 협회)는 7월 6일(월) 오후 두시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회의실(2층)에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중호, 이하 기보)과 농협은행 주식회사(은행장 강태영, 이하 농협)와 함께 ‘K-푸드 글로벌 확산을 위한 푸드테크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K-푸드 열풍을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신제품 및 신기술을 개발하는 푸드테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자금조달 지

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협회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푸드테크 회원사를 발굴해 농협에 추천하면, 농협은 여신취급 가능 기업을 선별해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기술보증을 지원하는 3단계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지원 프로그램은 총 1,770억원 규모이며 △특별출연 협약보증(700억 원, 운전자금, 기업당 30억 원 한도, 3년간 보증비율 100%·보증료 0.2% 포인트 감면) △보증료지원 협약보증(1,070억 원, 운전·시설자금, 2년간 보증료 0.7% 포인트 지원)

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총자산 5천억 원 미만 기업 중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추천 푸드테크 기업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정용의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식품 푸드테크 기업들이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푸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K-푸드 글로벌 확산을 위한 푸드테크 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농식품 물가 정책, 획일적 지원 넘어 맞춤형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이 농식품 물가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만큼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표한 ‘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개선 과제’ 연구에서 저소득 가구와 노인 가구, 비근로 가구는 쌀, 배추, 마늘, 수산물 등 생활 필수 식재료의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물가 상승기에는 이들 가구의 농식품 물가지수 상승률이 다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체감하는 물가 부담도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실제 체감하는 농식품 물가 상승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고 느끼는 응답이 많았다.

최근 3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거나 구매 부담이 큰 품목으로는 사과와 배추를 비롯해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치킨, 빵 등이 꼽혔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은 구매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또 가구 특성을 반영한 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를 정기적으로 산출해 정책에 활용하고, 사과와 배추, 축산물 등 소비자 부담이 큰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 유통·가공 과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식품 기업이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시행소비자 알권리 확대

간장·당류·식용유지류까지 GMO 표시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7월 8일 개정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 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업계·소비자·학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하였다.

기존에는 GMO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간장(한식간장, 양조간장 등) △당류(물엿, 올리고당 등) △식용유지류는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설의 개·보수 등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

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식약처는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와 안내서 마련 등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품미가 다채롭다니
역시 한돈답네요,,
한돈 홍보대사 **안성재**

세계적 식재료
가장 가까이에, 한돈